

장성군, '숲이 주는 선물' 고로쇠 수액 채취 시작

북하면 입암산·백암산 자락서 3월 말까지 채취

신선하고 진한 맛 일품... 年14만 리터 규모 선사

깨끗한 자연에서 채취한 장성 고로쇠 수액이 본격 수확철을 맞이했다.

장성군 북하면 가인마을과 남창마을은 고로쇠 수액 산지로 잘 알려져 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입암산과 백암산 자락에서 자라난 고로쇠나무 6000여 그루가 연간 14만 리터 규모의 수액을 선사한다.

고로쇠 수액에는 칼슘과 미네랄,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골리수'라 불리기도 한다.

장성 고로쇠 수액은 일교차가 큰 청정 환경에서 채취해 맛과 향이 진하다. 특히, 목 넘김에서 느껴지는 청량감이 남다르다. 수액 채취를 기다리는 단골 고객만 1000명 넘게 확보하

고 있는 이유다.

채취 과정도 개선됐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물통을 들고 다니며 고로쇠 수액을 모았지만, 지금은 나무와 집수통을 고무관으로 연결해 신선도를 높였다. 포장해서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도 최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위생적이다.

수액 채취는 오는 3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은 1.5리터 6병 3만 5000원, 12병 7만 원이며 12병을 구입하면 택배비 무료다. 방문 구입 또는 온라인 거래 모두 가능하다.

구입문의는 남창마을 (061-393-9896), 가인마을(061-392-7790)로 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빼어난 산세를 자랑하



는 입암산, 백암산에서 채취한 '명품' 장성 고로쇠 수액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화순군,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화순군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건강한 임신 지원하기 위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2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난임부부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 1년 이상 임신이 안되는 난임부부에서 고령 출산의 경우 난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난임부부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한방 난임 치료의 임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조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난임 검사 결과지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군보건소 모자보건팀(☎379-5981)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맞춤형 난임 치료를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담양형 향촌돌봄 사업' 실무추진단 간담회

담양군은 지난 16일 향촌복지 실무추진단 15명을 대상으로 '담양형 향촌돌봄 사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부서(향촌복지과, 주민복지과, 보건소)별로 복지 수요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세부 계획 수립과 관련해 문제점을 보완해 앞으로의 절차와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민선 8기 공약인 '향촌복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4,52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양형 향촌돌봄 사업의 대상자 발굴과 관리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부서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향촌복지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담양형 향촌돌봄의 취지는 어르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거와 의료, 요양, 돌봄을 군이 지원해 병행, 시설 입소를 최대한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시, 불법 농지전용 뿌리 뽑는다...연중 상시 단속

위법사항 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조치

나주시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읍·면·동에 불법전용 업무 편발 시달, 합동 현장 단속을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합동 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연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

위반,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 야적 행위 등이다.

특히 농막의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목적이 아닌 주거, 숙박, 여가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농지전용 행위 적발 시 '농지법 제42

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고발 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산포면 등정리 일원에서 불법 농지전용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집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도시과, 건축허가과와 합

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시는 읍·면·동 업무 담당자 대상 정기적인 업무 연찬 및 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행정제도·지도 등 사전 예방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기동취재본부

구례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

구례군은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전라남도도와 시군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례군은 3월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심의를 거쳐 4월부터 대상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라남도도 주소를 두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갤러리 107 '겨울 예술학교' 성과물 전시회



오늘부터 23일까지 300여 점 전시

곡성군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갤러리

107에서 '겨울 예술학교'에 참여한 지역 청소년과 군민들의 성과물을 선보이는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겨울 예술학교'는 지역 청소년 등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고 도자기 소품 만들기, 자개 공예, 리본 공예, 조각보 바느질 등의 다채로운 예술 활동을 지원, 300여 점의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완성됐다.

곡성 중앙 초등학교 3학년 A양은 "방학을 맞아 참여한 예술학교에서 전복 껍질로 만든 자개 공예가 새롭고 흥미로웠고, 다양한 색상의 자개 조각들을 조합하며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겨울 예술학교와 전시회가 지역 청소년들과 군민들에게 예술적 감성을 높이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회는 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07-1에 위치한 '갤러리 107'에서 열리며, 전시 기간 중 휴관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곡성=양혜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